

# 독일 중소기업 인수관련 검토 보고

## 1. 기술확보를 위한 독일 중소기업 인수방안 검토의견

◇ M&A 보다는 공동 R&D, 특허도입, 라이선싱 등이 기술 확보에 보다 효과적임

### ① 업계 조사결과 M&A 보다는 공동 R&D, 특허도입, 라이선싱, 기술 자 유치 등을 선호

\* 국제기술협력 선호 유형 조사결과(산업기술평가원, 2004.7월) : 공동 R&D(42%), 전문가 초청지도(34%), 기술도입(28%), 해외파견·연수(26%), 합작투자(24%)의 順

### ② M&A의 경우 과도한 사전조사 비용(시간, 정보, 법률)과 각종 리스크(경영, 핵심인력 유출, 기업문화 등)로 인해 기피

- 독일 중소기업 인수와 같은 해외 M&A(cross-border)의 경우, 지리적·언어적 문제로 인해 핵심정보 입수가 어렵고, M&A에 따른 시너지 효과 창출 불투명 등으로 성사률이 낮음

\* '03년 전세계 M&A(1조 2,230억불)중 해외 M&A는 11.5%인 1,410억불에 불과

### ③ 한편, 주독일 한국대사관 측에서 제공한 獨 중소기업 인수를 희망하는 국내업체 조사결과, 국내 관심기업의 발굴이 곤란

- 추가 인수대상 독일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입수도 곤란

## 2. 한독 산업기술협력 확대방안(별첨)

# 한·독 산업기술 협력 확대 방안

## 1. 한·독 기술 및 부품·소재 협력 현황

◇ 최근 독일 Siemens R&D 센터의 설치(분당) 등 한·독 기술협력이 늘어나고 있으나, 미국·일본에 비해서는 저조한 수준

### □ 공동 R&D 및 독일 첨단 R&D센터 설치

- 국내 기술혁신역량이 신장됨에 따라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의 기술 협력(공동R&D, 인력교류 등)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
  - \* 삼성 테크윈의 Rollei社 인수 및 연구센터 설립('96) 및 포스코 · Fraunhofer FEP 기술이전 및 공동 R&D ('02~'03)
- 독일 연구소의 국내 진출도 점차 가시화
  - \* Siemens 메디컬 R&D센터('04.10, MOU체결), Fraunhofer IGD 유치('04.5) 등
- 정부차원의 기술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공동협력사업도 꾸준히 확대
  - \* 한독 산업기술협력위 설치('04.9월), 한독 공동기술개발('02~) 등

### □ 기술무역 및 부품·소재 교역

- 독일은 한국의 제3대 기술도입국이나 미국(57%), 일본(15%)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(5%)
  - \* 기술도입은 주로 기계, 전기전자, 화학, 소재 분야에 집중
- 독일은 세계 최고의 수출국가로서 기계·부품·소재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, 한국은 주로 일본에 의존

'03년 기준	독일	미국	일본	한국
·총 수출액(억불)	7,484	7,240	4,719	1,938
·1인당 수출액(불)	9,074	2,462	3,697	4,044

\* 부품·소재 분야 對독일수입은 對日수입의 19.5%, 수출은 對日 수출의 38.1%에 불과('04년 기준)

## 2. 독일과의 기술 협력이 미진한 원인

- ① 地經學的(geo-economic)·經濟史的·言語的 특성상 독일보다는 미국, 일본에 대한 우리 경제의 의존도가 높음
  - \* 독일도 그간 EU공동체간 기술협력에 주력, 제3국과는 다소 소홀
- ② 미국, 일본에 비해 기술협력 연계조직이 취약하고, 독일기술 전문가도 부족
  - \* 미국 유학생 출신들이 과학기술계 주류를 이루면서 기술협력 경로 또한, 미국위주로 형성된 것이 주요 원인
- ③ 부품·소재는 일본과 경합관계이며, 우리가 필요한 일부 품목의 경우 독일이 일본보다 기술력이 낮아 수입유인이 크지 않음
  - \* 반도체 및 반도체제조장비, IT분야 핵심부품·소재 등은 일본이 우위

## 3. 한·독 기술협력 가능분야

- 독일은 전통적 기술강국으로서 기초과학과 기계, 자동차, 화학, 제약, 소재 등에서 세계 최고기술 보유

<p>&lt; 독일의 강점기술 &gt;</p> <p>◇ 기계(Bosch, Siemens 등) 및 자동차(Benz, BMW, Audi, Porsche 등) * 세계 기계의 4대 중 1대는 독일제 * 오토엔진(1876년), 디젤엔진(1897년), ABS 등을 세계 최초 개발</p> <p>◇ 정밀화학 및 제약 : Bayer, Haechst, Merck 등이 수백년간 기술축적</p>
---

- “디지털전자 분야”에서 한국의 공정 및 상용화기술과 독일의 원천기술이 결합될 경우 시너지 창출 가능
  - \* [사례] MP3 원천기술은 독일 Fraunhofer HHI에서 개발한 반면, 우리나라에서 상용화에 성공
- “기계·자동차부품 및 화학소재”에서 독일과의 기술협력 확대시 지나친 대일 의존도를 탈피하고, 기술 도입선 다변화 기회

## 4. 금번 VIP 순방시 조치사항

### < 한·독 기술협력 기본방향 >

- ◇ 민·관 차원에서 다양한 기술협력 채널을 구축, 가동하고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
- ◇ 특히, 중소기업의 독일 원천기술에 대한 접근 및 활용이 원활하도록 기술협력 지원기관을 확충하고, 기능을 내실화
  - 금번 VIP 순방은 한·독 기술협력의 물꼬를 트고, 장기적 성과 창출을 위한 협력 시스템 구축에 주력

### 【세부 협력계획】

- ① 한·독 기업인 및 산업기술계 종사자 200여명이 참석하는 「Techno Caravan」과 「산업기술협력위 R&D분과위」 개최 (4.12~14)

### < Techno Caravan 개요 및 예상성과 >

- ▶ 행사개요 : 민간차원의 한·독 산업기술협력 활성화의 場을 마련
  - 일시·장소 : 베를린(4.12~13일), 프랑크푸르트(14일)
  - 주요 내용 : 기술협력 포럼 및 무역·투자 등 B2B 상담회 개최
- ▶ 예상 주요성과
  - 1) 프라운호퍼 R&D센터 유치, 신재생 에너지 기술협력, 바이오디젤 공동R&D 등 기술협력 프로젝트(12건)
  - 2) 음향분석 S/W” 수출 등 해외시장 개척(7건)
  - 3) Bosch社의 커먼레일 디젤엔진 공장 증액투자 등 투자유치 프로젝트(6건)

- ② 중소기업협력 촉진을 위해 중진공(韓)과 AiF(獨, 산업연구개발협회)간 중소기업협력 MOU체결
- ③ 차세대 디스플레이 소재기술을 보유한 프라운호퍼 IST/FEP의 R&D 센터 유치를 위한 MOU 체결
- ④ 기술제휴 및 인력교류 활성화를 위한 연구기관간 협력강화(3건)